

해풍맞고 자란 '신안단호박' 300톤 일본 수출길

40농가 생산자단체 구성해 수출대행업체와 계약 재배 900톤 생산

600톤은 내수판매 총 4억5천만원 소득...항암효과·노화방지 탁월

신안군의 청정지역 게르마늄 흙에서 자란 2020년산 단호박 300톤이 일본에 수출된다.

13일 군에 따르면 신안에서 생산된 섬 단호박은 40농가가 생산자단체를 조직해 수출대행업체와 계약재배를 하고 지난 4월 54ha를 파종, 지난달 900톤을 생산했다. 이 가운데 300톤을 일본에 수출하

고 600톤은 내수판매를 통해 4억 5000만원의 농가소득이 예상된다.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품질이 좋은 신안단호박은 비타민 B와 C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칼슘과 무기질, 당질이 풍부해 항암효과, 노화방지, 변비에 탁월한 웰빙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국내 소비

자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 신안군은 섬 단호박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종자비, 밀칭비, 농자재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1억7000만원 지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섬 단호박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길에 오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기계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농업인 대상 불용농기계 매각시행
고가 농기계 저렴하게 구입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연)는 지난 2일 임대사업용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나 불용결정이 된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 매각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하던 파종기, 관리기, 쟁기 등의 임대농기계 15종 33대를 매각 대상으로 선정하여 영암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 형식으로 추진하였다.

매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덕진본점에서 시행하였으며 대상 농기계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품목을 확인하여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응찰하여 낙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최대한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1인 5대로 낙찰대수 제한을 두었으며 동일 기계에 복수의 구매 희망자가 있을 경우 최고가액을 제시한 농업인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영암군, 2020 정기본 재산세 73억원 부과

영암군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20년 7월 정기본 재산세 2만 2천여건에 7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3억 8천만원 더 과세하였으며 이는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m²당 71만원 → 73만원) 및 개별주택가격 4.64% 상승, 공동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부과액 증가, 임대아파트 주택 개인 분양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연세액을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영암군, 코로나 19 신속대처로 주민불편 최소화

확진자 발생 장소 폐쇄·접촉자 등 검사...전원 음성



영암군은 지난 7월 8일에 이어, 7월 9일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총 2명 발생했다.

군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후, 지난 7월 8일에 확진자가 발생한 금정면사무소를 2주간 즉각 폐쇄하였으며, 9일에는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군 본청과 사중면, 서호면사무소를 일시 폐쇄 조치하였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 내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과 금정면 주민 등 총 917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7월 8일에 210명을 검사하여 모두 음성판정을 받는데 이어, 7월 9일에는 707명을 검사한 결과 또한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영암군 공직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 2명과 자가격리자를 제외한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금정면사무소를 제외한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는 7월 10일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했다.

금정면사무소가 2주동안 폐쇄함에 따른 업무 공백을 우려해 7월 13일부터 공무원 5명의 인력을 금정면에 긴급배치하여 정상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으로 군정 업무를 정상화하여 군정 공백을 줄이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군정 업무에 차질이 없게 되었다"고 말하며, "최근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소모임 등 외부활동 자제와 손씻기, 마스크 착용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 받습니다"

8월 31일까지...심사위원회 모집

목포시는 '제58회 목포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2020년 목포시 시민의 상 후보자 및 심사위원회 위원'을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 접수 및 공개 모집한다.

목포 시민의 상은 193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로 현재까지 1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목포시를 빛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군 '고령친화공간 정비 공모사업' 선정

국비 2억원 확보

함평군은 대동면 경로식당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친화공간 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고 10일 밝혔다.

고령친화공간 정비 사업은 국토부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 정비 사업이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로 대동면사무소 내 유휴 공간 100㎡를 리모델링해 고령자를 위한 경로식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군은 해당 경로식당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6월 수돗물 수질검사 '적합'

몽탄정수장·덕정 정수장·일반 수도꼭지 34개소

목포시는 6월중에 몽탄 정수장과 덕정 정수장, 일반 수도꼭지 3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미생물 4종, 건강상유해영양 무기물질 12종, 건강상유해영양 유기물질 17종,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11종, 심미적 영향물질 16종 등 총 60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납, 비소, 페놀 등 43개 항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질산성질소(0.6mg/L) 등 17개 항목은 기준치 보다 낮게 검출됐다.

시내 34개 지역에서 표본 추출한 일반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일반세균, 총대장균 군, 분원성대장균 군/대장균 등이 불검출 되는 등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목포 신도심(하당동, 신흥동, 부흥동, 옥암동)지역, 용해1지구 및 삼향동 일부지역 시민들은 장흥댐 덕정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물을 받아 옥암 배수지를 통해, 나머지 지역은 주암댐에서 원수를 공급받아 몽탄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목포 시민들은 두 정수장을 통해 하루 평균 9만톤 가량의 수돗물을 공급 받고 있다.

김정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수확은 생애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